

마하티르 시대 그리고 그 이후 :

마하티르의 정치적 유산과 말레이시아 민주화 전망

황인원

2003년 10월 31일은 말레이시아 현대정치사에서 역사적인 날이다. 1981년 말레이시아 4대 수상에 취임한 마하티르가 22년 집권이라는 영욕의 세월을 뒤로 하고 공식 퇴임한 것이다. '아시아 개발독재의 마지막 상징'이자 '현존하는 아시아 최장수 정치지도자'로 불리던 마하티르의 퇴진은 말레이시아는 물론 동남아 한 시대의 마감이라는 역사적 평가를 내리기에 손색이 없다.

일국의 정치지도자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 집권 22년이라는 물리적 수치를 떠나, 제3세계의 어느 정치지도자도 마하티르처럼 끊임없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던 이는 없었다. 마하티르에 대한 수식은 '전형적인 개발독재자'로부터 '말레이시아 근대화의 아버지', '제3세계의 대변인', '반세계화의 선봉장'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하고 현란하다. 마하티르는 퇴임 직전까지도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이슬람 정상회의OIC에서 유대인의 세계 지배를 비판하는 반유대주의적 발언을 통하여 국내외 언론의 화려한 조명을 받았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말레이시아 국내는 물론 최근 '아세안+3 정상

회의'에서의 "많은 한국 국민들이 각하를 존경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찬사는 접어두더라도, 그동안 마하티르에게 비우호적, 적대적이었던 서방의 언론들에서조차 마하티르의 퇴진에 따른 리더십 총평에 있어서 지나칠 정도의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집권 기간 마하티르가 국내외적으로 이룩한 공과에 대해 지나치게 인색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말레이시아 정치과정에서 마하티르가 남겨놓은 정치적, 사회적 유산의 빛과 그림자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보다 냉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마하티르 이후 말레이시아 정치체제의 향방 혹은 향후 말레이시아에서의 민주화 가능성을 전망하는데 있어서의 균형있는 출발을 위해서도 절실한 문제인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말레이시아 정치체제의 기본적 속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마하티르 집권 시기에 말레이시아 정치체제의 지배양식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또한 정치체제의 민주화와 관련하여, 마하티르 이후 말레이시아는 어떠한 전망을 지니는가에 대한 논의를 본문의 주요 내용으로 한다.

말레이시아 현대 정치체제의 형성과 체제변동

말레이시아 정치체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유난히도 많은 접두어가 사용된다. '준' 민주주의semi-democracy, '의사' 민주주의quasi-democracy, '비자유적' 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 '협의적' 민주주의consociational democracy '제한적' 민주주의limited democracy. 이 모두가 말레이시아 정치체제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용어들이다. 하지만 용어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공통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말레이시아는 '민주주의를 향유하고 있다'는 점과 '그 민주주의가 온전한 형태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즉, 표면적으로 말레이시아는 서구민주주의의 본질인 정당정치에 의한 정치과정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치과정의 실질적 내용이 서구적 기준에서의 민주주의체제에 충분히 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한국식' 민주주의

라는 용어에 익숙한 우리로서도 이러한 현상이 전혀 생소한 것은 아니지만, 말레이시아 정치체제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사회의 이질적인 갈등구조와 이를 반영한 현대 정치체제의 형성과 변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57년 영국의 식민통치로부터 독립한 말레이시아는 약 2,300만 명에 달하는 인구에 대표적인 종족집단인 말레이계(55%), 중국계(28%), 인도계(8%)를 포함하여 기타 60여 소수 종족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는 전형적인 다종족 복합사회이다. 이들 다양한 종족집단들은 생활양식뿐 아니라 언어, 종교, 문화 그리고 가치관에 이르기까지 서로 이질적이기 때문에 종족문제는 영국 식민지배, 일본 군정시기 그리고 독립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정치적, 사회적 갈등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부각되었다. 근대 민주주의의 산물인 정당체계 역시 말레이시아에서의 정당은 여당과 야당을 막론하고 철저히 각각의 종족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종족정당의 형태로 존재한다.

그러나 여타 다종족 신생독립국들의 현대사가 종족 간의 심각한 분열, 파편화와 전쟁으로 점철된 것과는 달리, 말레이시아는 지난 반세기 동안 상당한 정도의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구가하고 있다. 1969년에 발생한 말레이계와 중국계 간의 종족폭동 이후 약 2년간을 제외하고 말레이시아에서 의회정치는 독립 이후 현재까지 약 4~5년 주기로 총 10차례에 걸친 경쟁적인 총선을 치르며 안정적으로 지속되었다. 비록 여야 간의 수평적 정권교체는 아닐지라도, 집권정당 내에서 세 차례에 걸친 평화적인 정권교체도 이루어졌다.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주변 동남아 국가들은 물론 제3세계 많은 신흥독립국들에서 흔히 목격되는 군부의 정치개입과는 달리 말레이시아에서는 단 한 차례도 군부에 의한 의회정치에의 도전 또한 발생하지 않았고, 군부의 정치적 역할 역시 지극히 미약하다. 이러한 예측가능한 안정적 정치과정 때문에 말레이시아가 민주주의를 향유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에서 실질적인 경쟁과 참여를 근간으로 하

는 서구적 관점에서의 민주주의가 구현되어 왔다고는 볼 수 없다. 보다 정확히 말해, 영국 식민지배에서 독립으로 이어지는 현대 정치체제의 형성과정에서 식민정부는 물론 말레이시아 지배 정치엘리트들에게 서구식 민주주의 체제는 애초부터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들은 말레이시아와 같이 지극히 분열적인 사회갈등구조하에서 정통적인 민주적 방안으로는 정치안정은 물론 체제유지를 담보할 수 없다는 공통의 인식하에 특정적인 갈등해결방안에 주목하였고, 각 종족집단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정치엘리트들 간의 '타협'과 '연합'의 정치를 특징으로 하는 '협의적' 혹은 '말레이시아식' 민주주의를 현실적 대안으로 선택하였다.

원래 협의민주주의는 라이프하트Lijphart가 네덜란드, 스위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 서유럽 다원주의국가에서 어떻게 효과적인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각 종족집단의 정치엘리트들이 모두 참여하는 대동맹grand coalition체제하에서 이들 정치엘리트들이 상당한 정도의 정치적 자율권autonomy을 지니며 상호견제mutual veto와 비례원칙proportionality을 효과적으로 작동할 때 이질적인 다종족 복합사회에서도 정치안정과 민주주의를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¹

이를 반영하여, 말레이시아의 경우도 말레이계를 대표하는 UMNO(United Malays National Organization), 중국계를 대표하는 MCA(Malaysian Chinese Association), 인도계를 대표하는 MIC(Malaysian Indian Congress) 세 정당의 정치엘리트들이 지배연합인 동맹당Alliance을 통하여 탈식민화 이후 독립 초기 정국의 안정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협의민주주의체제로 불리기에 큰 무리가 없다. 이 시기 비록 정치영역에서 UMNO를 중심으로 한 말레이계의 배타적

1 Arend Lijphart, "Consociational Democracy", *World Politics* 21(2), 1969; Arend Lijphart, *Democracy in Plural Societies: A Comparative Explora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7 참조.

지배현상이 현저하였으나, 경제력을 장악하고 있던 중국계 정치엘리트들도 상당한 정도의 정치적 자율성을 바탕으로 UMNO의 패권적인 지배를 효율적으로 견제하였다. 다양한 종족적 이해관계에서 발생하는 제반 갈등 역시 각 종족을 대표하는 정치엘리트들 간의 타협과 협상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통제되었다.²

하지만 1969년 총선에서 중국계 야당인 DAP(Democratic Action Party)의 약진을 계기로 폭발된 말레이계와 중국계 사이의 종족폭동이라는 정치적 위기 상황은 말레이시아 정치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케 하였다. 즉, 경제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계의 정치영역으로의 영향력 확대와 이에 대한 말레이계의 절망과 위기의 폭발이라는 1969년 종족폭동은 UMNO로 하여금 기존의 비말레이계 정치엘리트들과의 타협에 의한 체제유지라는 협의적 정치행태가 더이상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를 반영하여, 1969년 종족폭동 이후 말레이시아는 정치적, 경제적, 법적 그리고 이념적 차원을 포함한 말레이시아 사회 전반에 걸쳐 기존의 협의적 정치행태에서 UMNO를 정점으로 한 말레이계의 패권적 지배체제로 본격적인 변화를 하게 된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종족폭동의 직접적인 원인이 중국계에 대한 말레이계의 상대적 박탈감이었다는 인식하에, 빈곤퇴치와 종족 간 경제적 불균등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신경제정책(NEP: New Economic Policy)을 실시한 것이다. NEP를 통한 경제적 불균등 구조의 개편은 1970년 당시 2%를 밀들던 말레이계의 국내기업과 산업분야 소유권을(정부의 직접적인 개입과 말레이계 특별 우대정책을 통하여) 1990년까지 3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일련의 정책으로

2 독립 초기 협의적 정치행태의 자세한 내용은 In-Won Hwang, *Personalized Politics: The Malaysian State under Mahathir*,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2003, pp. 46-90 참조

구체화되었다. 이는 다름 아닌 말레이계를 대변한다는 UMNO 정치엘리트들이 NEP를 그들의 자본축적을 위한 정치적 기제로 적극 활용했음을 의미하는 것임과 동시에 경제적 입지강화를 통한 정치권력의 공고화에도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이다.

한편, NEP 체제하에서 경제적 측면 이외에 언어, 교육, 이념 등 경제 외적인 사회구조 개편을 통하여 UMNO를 정점으로 하는 말레이계의 배타적이고 독점적 지위를 더욱 강화시켰다. 단적인 예로, 종족폭동 이후 1년9개월 만에 재개된 의회는 그 첫 번째 활동으로 헌법을 개정하였는데, 주요 내용이 말레이계에 부여된 각종 특권 및 '특별한' 지위에 관련된 '민감한 사항'에 대해, 의회 스스로를 포함해서 일체의 공론화를 금지함으로써 다양한 종족간의 타협과 협의를 통한 국민적 통합을 사실상 제한하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UMNO는 국내보안법, 치안법, 공무비밀법, 사회법, 인쇄출판법 등 각종 사회통제에 관한 법들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개악을 주도함으로써 1970년대와 1980년대를 통하여 권위주의적 통제를 더욱 심화시켰다.

말레이시아 정치 일반에서는 물론, 지배연합 내에서 UMNO의 패권적 지위가 더욱 공고화된 것 또한 이 시기 두드러진 현상이었다. 이는 종족폭동 이전의 지배연합이었던 Alliance를 해체하고 새로운 지배연합인 BN(Barisan Nasional, National Front) 체제의 구축을 통해 이루어졌다. 기존의 Alliance 체제 하에서는 UMNO, MCA, MIC가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의 유일한 대표 창구로서 종족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담당했음에 비해, BN 체제는 기존의 MCA, MIC는 물론 여타 중국계, 인도계 및 소수 종족정당들을 포함하여 무려 10여 개에 달하는 다중적 대표체계를 띠고 있다. 이는 집권체제 외부로부터의 비판을 최소화함으로써 종족폭동 이후 정치안정을 꾀한다는 측면도 있으나, 말레이계의 대표창구는 UMNO로의 유일대표체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종족집단들의 대표체제는 다원화함으로써 지배연합 내에서 UMNO의 패권적 지배를 더욱 공고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종족폭동

이전의 지배연합이 상당한 정도로 협의적 정치행태를 유지하고 있었음에 반해, 종족폭동 이후 정당제도는 패권적인 UMNO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2차적인 위성적 소정당들이 연립여당의 형태로 존재하는 일당우위 정당체계의 전형으로 질적 변모를 한 것이다.

마하티르의 정치적 유산: 종족정치의 완화와 권력의 사유화

1981년 마하티르의 집권은 정치체제의 변동과 관련하여 말레이시아 현대 정치사에서 또하나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였다. 1946년 UMNO의 창당 멤버로 정치이력을 시작한 마하티르는 1964년 UMNO 국회의원에 당선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정계에 입문하였다. 이후 1969년 선거에서 낙선한 후, 1969년 종족폭동의 책임을 중국계와의 지나친 타협과 말레이계에 대한 보호를 등한시한 당시 수상 압둘 라만 Abdul Rahman과 UMNO 지도부에 공개적으로 물은 후 UMNO에서 출당되었다. 출당 3년 만에 라만의 뒤를 이은 압둘 라자 Abdul Razak 수상에 의해 UMNO에 복귀한 마하티르는 1974년 국회의원에 재선되었고, 1976년 후세인 온 Hussein Onn 수상에 의해 부수상에 임명된 후 1981년 말레이시아 역사상 평민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4대 수상에 올랐다.

마하티르의 집권은 라만, 라자, 온으로 이어지는 UMNO 1세대 정치엘리트에서 마하티르, 무사 히탐 Musa Hitam, 라잘레이 함자 Razaleigh Hamzah를 중심으로 한 2세대 UMNO 정치엘리트로의 전면적 세대교체를 의미했다. 탈식민화 이후 이질적인 종족성 통합을 통한 민족국가 건설이 1세대에게 주어졌던 과제임에 반하여, 2세대 정치엘리트에게 주어진 과제는 전통적인 말레이시아의 정형을 깨는 말레이시아 근대화의 추진이었다. 이를 반영하여, 마하티르는 집권 초부터 동방정책 Look East Policy, 말레이시아 주식회사 Malaysia Inc. 등으로 대표되는 본격적인 자본주의적 경제발전 정책을 추진하였다. 말레이 민족주의를 지속적으로 표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하티르는 1990년대로 이어지는 기간 비非 말레이계를 상대로 자신의 이미지를 말

레이 종족의 리더를 벗어나 말레이시아의 모든 종족을 아우르는 인물로 강하게 부각시켰다.

개발독재의 전형이라는 부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집권기간 마하티르가 이룬 업적은 실로 화려하다. 1981년 취임 당시에 비해 20배로 늘어난 국민소득은 접어들더라도, 분열적 다종족사회인 말레이시아가 현재 고도의 사회적 안정을 구가하는 데 있어서 마하티르 정치리더십이 끼친 영향은 지대하다. 1969년 종족폭동 이후 『말레이 딜레마』라는 책의 저술로 말레이계 우대정책의 근간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기간 전체 인구의 40%에 달하는 중국계, 인도계 등 소수종족의 안정과 요구를 담보하는 탁월한 통치방식은 신생독립국의 전형적 골칫거리인 종족갈등으로부터 말레이시아를 자유롭게 하였다. 바로 이 점에서 마하티르가 남긴 첫 번째 정치적 유산으로 '자본주의적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한 종족정치의 완화' 임을 내세우기에 손색이 없는 것이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서서 마하티르는 'Vision 2020'이라는 개념의 제시를 통하여 기존의 '말레이를 위한 말레이시아'에서 '말레이시아인을 위한 말레이시아'로의 전환을 국민통합 과제로 본격화하였다. 이는 2020년까지 말레이시아를 경제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이념에 이르는 제반 분야에 걸쳐 완전한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장기적인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Vision 2020에서 마하티르가 제시한 선진국의 개념은 현재의 G7 혹은 G15 국가들이 누리는 것과 동등한 수준의 경제적 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 경제선진국들이 지니는 사회적인 병폐 및 부작용을 지양하고, 경제적 번영뿐만 아니라 정치안정의 달성, 사회공동체적 가치의 중시, 국민적 일체감 및 무엇보다도 이질적인 종족, 문화, 종교를 초월한 국민적 통합에 바탕을 둔 말레이시아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마하티르의 비핵서구적인 통치철학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흔히 비전은 그 의미 자체에 역설적으로 달성하기 힘든 과제들을 내포하

고 있다고는 하나, 1990년대 들어 고도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한 마하티르 정권의 우호적인 종족정책에 힘입어 말레이시아의 역사상 그 어느 시기에 비해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되던 언어, 교육, 종교, 문화 등 '전통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둘러싼 종족 간의 갈등이 현저하게 완화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를 반영하여, 중국계 전통야당인 DAP에서조차 1990년대 들어 말레이시아는 '문화적 자유화(cultural liberalization)'의 시기를 맞이하였다고 평가하고 그 최대의 공적을 마하티르에게 돌리고 있다.

하지만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의 마하티르의 공적이 정치적 측면에서도 계승된 것은 아니었다. 즉, 1990년대 언어, 종교, 교육 정책 등의 완화에서 보이는 문화적 자유화 경향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의 정치과정이 보다 신장된 자유화를 동반한 것은 아니었다. 강대국 중심의 패권주의에 대항하여 제3세계의 대변인으로 '국외적으로는 보다 민주적'이라 평가를 받던 마하티르의 정치적 행보는 1990년대 들어서 '국내적으로는 덜 민주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집권 말기로 갈수록 말레이시아 정치를 보다 철저하게 자신의 권위를 중심으로 재편하며 '권력의 사유화 과정'으로 몰고 갔던 것이다. 즉, 1960년대 종족 엘리트 간의 타협의 정치가, 1970년대 UMNO 중심의 일당우위적 패권적 지배체제를 거쳐, 1980년대 후반 이후 정치영역 전반에 걸쳐 마하티르 개인을 중심으로 한 권력의 집중화로 질적 변모를 한 것이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을까? 이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UMNO 내부의 권력을 둘러싼 정치위기와 체제변동의 역학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마하티르 개인으로의 권력 집중화 배경에는 마하티르 집권 초기부터 고조되던 UMNO의 파벌경쟁이 이르러 마하티르 개인의 권위를 둘러싼 직접적인 정치위기로 발전한 데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사실상 1969년 종족폭동 이후 BN 체제의 형성과 UMNO의 패권적 지위 강화는 UMNO 내에서 국가권력을 둘러싼 파벌 간의 갈등이 점진적으로 증가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고 있었다.³ 하지만 당내 파벌갈등이 본격적인 정치갈등

으로 심화되고 급기야 마하티르정권의 정치위기로 전환하게 된 시기는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이고 그 배경에는 집권 당시 취약했던 마하티르의 UMNO 내 정치기반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마하티르가 보인 '이울배반적인(controversial)' 정치행태가 핵심적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1969년 이후 3년에 걸친 UMNO 출당 경험과, 1975년 UMNO 부총재단 선거에서 선출된 3명의 부총재 중 가장 낮은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UMNO의 전통과 달리 부수상에 임명되었던 마하티르는 당내 정치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상태에서 수상에 올랐다. 이를 반영하여, 마하티르는 집권 과정과 집권 직후 당시 UMNO 내에서 폭넓은 지지를 누리던 몇몇 개인들에 대한 정치적 견제를 위한 주요 방편으로 당내의 파벌갈등과 경쟁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당 총재가 수석부총재를 선임하던 당시까지의 UMNO 전통에 반하여, 수석부총재 선임을 1981년과 1984년 UMNO 선거에서 대의원에 의한 직접 선출로 교묘하게 유도한 것이다. 두 차례에 걸친 선거에서 마하티르는 당시 당내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던 라잘레이와 무사 히뎀을 상호 경선케 함으로써 집권 초 자신의 취약했던 정치적 입지를 보완하려 했던 것이다. 특히, 마하티르는 당시 보다 강력한 라잘레이를 견제하기 위해 무사 히뎀에게 선거에서의 은밀한 지원과 당내 2인자 자리에 대한 “구두합의”를 하면서 무사 히뎀의 경선 참여를 독려했다.⁴ 한편, 전임 수상 후세인 온에 의해 수상에 선임되는 과정에서도 마하티르는 당시 3명의 부총재 중 선임부총재이자 당내 기반이 공고하던 라잘레이의 지지를 얻어내

3 UMNO의 권력서열은 위로부터 당 총재, 수석부총재 그리고 3명의 부총재로 이어진다. 전통적으로 UMNO 총재는 말레이시아의 수상이 되고 수석부총재가 부수상이 된다. 수석부총재가 UMNO 총재 및 수상직을 이어받을 때, 3명의 부총재 중 3년마다 치르는 UMNO 전당 대회 대의원 선거에서 최고 득표를 받은 부총재가 수석부총재 겸 부수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4 무사 히뎀과의 인터뷰 (1998년 2월 13일)

기 위해 집권 후 당내 2인자 자리의 보장에 대해 라잘레이와 “암묵적인 합의”를 하였다는 라잘레이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작 수상에 취임한 후에는 무사 히뎨뎨를 부추겨 1981년 UMNO 전당대회에서 당내 2인자인 수석부총재 선거를 유도해 낸 것이다.⁵

집권당 내의 파벌경쟁을 이용한 ‘견제와 균형’의 정치는 일견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사실은 마하티르에게 치명적인 정치적 위기를 야기한 1987년 UMNO 선거의 배경에 다름 아닌 마하티르 자신이 허용하고 조장했던 UMNO 파벌경쟁이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즉, 마하티르의 집권 과정, 1981년과 1984년으로 이어지는 선거과정에서 라잘레이와 무사 히뎨뎨는 정치적 신의에 어긋나는 마하티르의 이율배반적인 정치행태에 공분하며 1987년 UMNO 선거에서는 양자가 공조하여 마하티르의 당 총재직에 직접 도전을 한 것이다. 비록 선거는 마하티르의 승리로 귀결되었지만, 선거 결과는 전체 대의원 1,479표에서 43표 차이에 불과한 마하티르의 근소한 승리였다. 그것도 부정선거 개표절차에 의한 승리라는 소문이 정가에 널리 퍼질 정도로 당시 마하티르에게는 치명적인 위기의 순간이었다. 선거 결과가 시사하는 것은 마하티르의 의도와는 달리 1981년과 1984년으로 이어졌던 선거과정에서 라잘레이와 무사 히뎨뎨에게 대의원을 상대로 한 정치동원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이들의 정치적 기반을 확충시켰고, 그 화살이 마하티르를 향해 돌아온 것이다.

혹독한 정치위기를 겪은 이후 마하티르에 의한 말레이시아 정치는 그 이전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형태로 전개되었고 이는 UMNO 내부의 정치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었다. 즉, 집권엘리트 내 정치적 분열이 제공하는 권위주의체제에서 보다 경쟁적인 체제로의 전환에 미치는 긍정적인 인과관계에도 불구하고, 1987년 이후의 정치현실은 UMNO 지배하의 권위주의적 체

5 라잘레이와의 인터뷰 (1998년 2월 23일)

제에서 그나마 경쟁적이고 민주적 요소를 지니던 UMNO 내부의 정치마저 집권당 내부의 분열을 방지한다는 '탈정치화'의 명목하에 마하티르 개인의 권위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재편되어 간 것이다.

정치적 위기상황에서 마하티르가 택한 정치적 선택은 '권력기반이 약한 지도자가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조직 내의 모든 것을 무에서부터 다시 조직하는 것'이라는 마키아벨리의 권고를 충실히 따르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는 당시 마하티르와 반(反)마하티르 진영으로 양분되어 있던 집권정당 UMNO를 해체하고 마하티르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집권정당을 조직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 이래서 탄생된 것이 지금의 집권정당인 신(新)UMNO인 것이다. 즉, 현재 신(新)자를 빼고 UMNO로 통칭되는 말레이시아의 집권정당은 비록 정당구성원이나 조직에 있어서 과거 UMNO와 흡사할지라도 그 내부의 정치적 동학이나 정치행태에 있어서는 마하티르 리더십에 찬동하거나 찬동을 강요받아 온,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정당인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마하티르 이후 말레이시아 정치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인으로 어떻게 신(新)UMNO 이전의 과거 UMNO가 지녔던 당내 경쟁적 민주정치의 요소들이 회복되는가 하는 문제로 제기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지니는 것이다.

신(新)UMNO를 창당하는 과정에서 1987년 UMNO 선거과정에서 마하티르에게 적대적이거나 비우호적이었던 인사들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우선 신(新)UMNO 창당을 본격화하기 이전에 향후 발생 가능한 여야를 막론한 정치영역에서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현대정치사에 유례없는 국내 보안법에 의한 대대적인 구속정국이 창출되었다. 1987년 UMNO 선거 이후 고조되던 종족갈등을 빌미로 시작된 구속정국은 1988년 1월에 이르기까지 UMNO, MCA, Gerakan(Malaysian People's Movement: 또 다른 중국계 여당의 하나) 등 지배연합 소속 정치인은 물론 당시 의회 야당지도자를 포함한 다수의 야당정치인, 사회운동가, 환경운동가 및 일반 노무자에 이르기까지 구속자 수

가 총 106명에 달했다. 대표적인 영자지인 《The Star》를 비롯하여 중국계 일간지 《Sin Chew Jit Poh》, 말레이계 잡지 《Watan》도 이 시기 정간조치를 당하였다. 구속정국 직후 본격적으로 출범한 신新UMNO는 이어지는 일련의 당헌 개정을 통하여 집권정당 내에서 당 총재의 권한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켰다. 1990년대 UMNO 정치를 논할 때 ‘탈정치’와 ‘비경선’이라는 용어가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것도 1987년 이후 본격적으로 사유화되어가는 정치과정에서 전혀 부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었다.

UMNO 내에서 마하티르의 패권적 지위 강화와 함께, 1987년 이후 또 다른 두드러진 현상은 마하티르를 정점으로 한 행정부로의 체계적인 권력 집중화이다. 사실, 1988년 법원에서의 UMNO 해체 판결과정에서 당시 독립적인 판결로 명망이 높던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마하티르 자신이 임명한 임시대법원장의 주재로 UMNO에 관한 법적 논쟁을 마무리한 것은 향후 마하티르에 의한 사법부 장악을 충분히 예견케 하는 것이었다. 특히, 1994년 헌법개정으로 ‘윤리강령’에 어긋나는 사법부 판사의 처벌권을 법원이 아닌 행정부의 수반인 수상에게 부여함으로써 사법부를 사실상 개인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킨 것은 그 단적인 예이다. 입헌군주의 면책특권, 법률안 비준 동의권 등 그나마 명목상으로나마 견제와 균형의 기제로 유지되던 입헌군주의 헌법상 위상 역시 1990년대 들어서서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사실 행정부의 권력 강화는 1957년 독립 이후 말레이시아에서의 꾸준한 현상이었지만, 마하티르 집권기간 그나마 제한적으로 견제와 균형의 외항을 지탱하던 요소들조차 마하티르 개인으로의 권력집중 과정에서 노골적으로 제거되어 간 것이다. 집권 말기 1997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자신의 사유화된 권력기반에 위협 요인이 된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10년 가까이 후계자로 양성하던 안와르 이브라힘 Anwar Ibrahim 전 부수상을 동성애와 부패혐의로 축출한 사실은 마키아벨리식 마하티르 정치철학의 비정함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인 것이다.

마하티르 이후 말레이시아 민주화 전망

그렇다면, 마하티르 이후 말레이시아 정치의 향방은 어떠한 것인가? 마하티르가 물러난 지금, 세간의 시선은 새로 취임한 압둘라 바다위 Abdullah Badawi 수상의 정치적 행보에 집중되며 정치체제의 민주화와 관련하여 '상황이 좀 나아질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마하티르 이후의 정치를 전망함에 있어서 1998년 9월 마하티르와 안와르 당시 부수상의 갈등과 균열로 대변되는 마하티르 정권의 정치적 위기와 그 위기의 극복 과정에서 야기된 갈등구조 변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너무도 공고해 보였던 마하티르 정권이 어떻게 집권 말기에 1987년 UMNO의 정치적 분열을 연상케 하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말레이계를 중심으로 반~~마~~마하티르 정서가 광범위하게 퍼지게 되었는가? 독립 이후 말레이시아 정치사에서 그 어느 시기도 지난 몇 년만큼 현직 수상에 대한 공개적이고 신랄한 비난이 가해진 적은 없었다. 말레이계의 반~~마~~마하티르 정서에 대한 이해가 마하티르 이후의 정치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마하티르와 안와르의 갈등과 균열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마하티르가 제기하는 동성애 및 부패혐의를 비롯해서, 해외언론이 주로 제기하는 경제위기 대응양식의 정책적 차이에서 야기된 갈등, 안와르 측이 제기하는 마하티르에 의한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음모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다. 본 논문에서는 안와르 사건의 배경에 대한 충분한 논의는 생략하고 사건이 야기한 정치적 결과에 주목하기로 한다. 이는 현재 말레이계의 반~~마~~마하티르 정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는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는 인식에 기인한 것이다.

이에 대한 이해에 마하티르 정권의 초대 부수상을 지냈던 무사 히팜의 "만약 마하티르가 자신의 권위에 안와르가 도전을 했다는 이유로 안와르를 부수상직에서 해임하고 출당 조치를 했다면 말레이계에서 지금처럼 광범위한

반파하티르 정서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증언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에 의하면, 안와르 제거 이후 말레이계의 정서는 “잔혹cruel”, “동정pity” 그리고 “수치shame”라는 단어들로 요약된다고 한다.⁶ 이러한 용어들은 동성애 혐의, 경찰에 의한 안와르 구타 그리고 이를 바깥 세상에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등의 안와르 제거과정에서 마하티르가 보인 행태가 ‘피지배자의 지배자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과 ‘지배자는 피지배자를 (공개적으로) 수치스럽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레이의 전통적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것에 대한 말레이계의 상처받은 정서를 대변하는 것이다. 즉, 안와르 제거 과정에서 보인 마하티르의 ‘잔혹하고cruel’ ‘수치스런shameful’ 비파말레이적 정치 행태는 기존의 ‘UMNO=말레이 종족의 수호자’라는 등식이 한낱 집권층의 권력유지를 위한 ‘허위의식’에 불과했다는 회의 및 정치적 자각과 함께 그동안 UMNO의 강력한 정치적 후원세력이었던 말레이계를 중심으로 반파하티르 정서가 광범위하게 퍼지는 계기를 제공했던 것이다. “잔혹하고 수치스런 탄압이 권력의 동반자인 2인자에게도 이렇듯 행해질 수 있다는 현실이 우리에게 너무도 심한 좌절을 심어주었다”는 한 젊은 대학생의 울분은 안와르 사건 이후 변화된 말레이계의 정서를 웅변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물론 1999년 선거 이후 말레이계로부터의 UMNO에 대한 지지가 점차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마하티르의 퇴임과 함께 1998년 이후 UMNO 정치엘리트들에게 커다란 정치적 부담이었던 말레이계의 반파하티르 정서가 상당부분 퇴색되리라 예상된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사실은 말레이계의 UMNO 지지가 더이상 UMNO는 말레이계의 수호자라는 전통적 등식하에서 맹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마하티르가 남긴 부정적인 정치적 유산을 빠른 시일에 지워버려야 하는 바다위를 새로운 정점으로 하는 UMNO 정치엘리트들에게 있어서(그들이 인식하든 못하든) 마하티르에 의해

6 무사 히람과의 인터뷰 (1999년 8월 23일)

서 상처받은 말레이계의 정서를 치유하는 일은 여전히 큰 난제로 남아 있는 것이다.

안와르 사건이 야기한 또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적으로 종족적 이해관계에 의해 반목하던 말레이계 전통야당 PAS(Parti Islam Se-Malaysia)와 중국계 전통야당 DAP의 전략적 제휴이다. 이와 더불어 UMNO를 탈당한 안와르 추종세력, 안와르를 지지하는 일부 이슬람청년운동세력 그리고 개혁적 성향의 시민운동세력이 연합하여 광범위한 다종족적 정치개혁을 표방하는 KeADILan(Parti Keadilan Nasional, National Justice Party)의 창당 또한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PAS, DAP, KeADILan 그리고 또 하나의 야당인 PRM(Parti Rakyat Malaysia, Malaysian People's Party)은 1999년 총선을 계기로 연합여당인 BN에 대항하여 야당연합인 BA(Barisan Alternatif, Alternative Front)를 결성하였다. 비록 총선 후 2년을 조금 넘긴 시점에서 DAP가 PAS의 이슬람 국가 건설이라는 정당을 문제 삼으며 BA에서 탈퇴를 하였지만, DAP와 PAS의 직접적인 선거동맹은 말레이시아 역사상 초유의 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표면적으로 볼 때, 야당연합의 결성은 안와르 사건이 야당세력에 제공한 정치적 기회의 산물이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동인은 1990년대 마하티르 정권에 의한 다양한 문화적 자유화 조치, 고도의 경제성장이 제공하는 종족갈등의 현저한 완화 그리고 안와르 사건을 계기로 말레이계를 중심으로 확산된 정치개혁에 대한 밑으로부터의 요구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1990년대 고도의 경제성장에 따른 중산층의 확대, 인터넷 신문 등 대안적 언론매체의 확산 역시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 비록 마하티르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으나, 마하티르 집권 말기에 나타난 종족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전통적 갈등구조에 변화를 야기케 한 일련의 정치과정들은 마하티르가 남긴 또 하나의 정치적 유산인 셈이다.

그렇다면, 마하티르 이후를 맞이한 UMNO 정치엘리트들은 마하티르가

남긴 정치적 유산의 그림자를 극복하며 1998년 이후 변모하기 시작한 정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들이 1969년과 1987년 두 차례의 성공적인(?) 정치적 위기 극복의 경험을 살려 이전의 패권적 지배 체제를 다시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마하티르 이후 말레이시아 정치변동과 관련된 이 두 가지 질문 중 어떤 것에도 확실히 답할 수 없었던 상황이 퇴임 직 전까지 마하티르의 딜레마였고 마하티르 이후의 UMNO 정치엘리트들에게도 고스란히 남겨진 딜레마인 것이다.

우선, 1969년의 상황과 1998년의 상황은 그 위기의 성격이 말레이계로부터의 불만에서 야기된 UMNO의 정통성 위기라는 데 있어서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1969년의 경우 UMNO의 정통성 위기를 야기한 원인이 당시 1세대 UMNO 정치엘리트들의 비말레이계에 대한 지나친 타협과 중국계에 대한 말레이계의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종족적 이해관계에서 기인한 것임에 반해, 1998년 위기의 경우는 마하티르의 독단적 정치행태에 상충받은 말레이계의 정서가 탈종족적 정치개혁의 요구와 부합하면서 발생하였다. 따라서 1969년의 경우 비말레이계의 희생을 담보로 한 말레이계의 패권적 지위보장이라는 대응으로 당시의 위기를 극복하였으나, 1998년의 경우는 외부적인 희생 양보다는 UMNO의 자기 개혁이 수반된 구시대 정치행태의 청산에서 위기의 극복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보다 근본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다.

1987년 정치위기와 비교를 해도 1998년 이후의 정치위기는 그 해결이 보다 어려운 상황이다. 즉, 1987년의 경우는 위기의 성격이 마하티르 개인의 이율배반적인 정치행태에 대한 UMNO 정치엘리트 내부의 반발로 정치분열의 파장이 주로 UMNO 내부에 국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1998년의 경우, 비록 말레이 정서에 반하는 마하티르 개인의 정치행태에서 위기가 발생한 것에는 1987년의 경우와 유사하지만, 위기의 내용이 UMNO 내부의 정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말레이계 일반 대중에 폭넓게 파급되어 나타났다는 데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또한, 1987년의 경우 1980년대 중반 종족갈등이 첨예

하게 대립될 때 발생하였고 당시 종족 간의 갈등을 마하티르 개인의 위기극복과 권위주의적 통치의 정당화로 활용할 수 있었으나, 1998년의 경우는 1990년대 들어 현저히 완화된 종족적 갈등구조로 인하여 종족갈등을 활용한 문제해결 또한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 상황이다. 더욱이 1999년 선거 결과에서도 보여지듯이 UMNO에 대한 말레이계의 정치적 이반현상이 두드러진 1998년 이후의 상황은, UMNO가 패권적 지위를 향유하던 1980년대와 달리, 집권체제의 유지에 있어서 비말레이계의 지지가 절실한 상황으로 선불리 비말레이계의 종족적 정서를 자극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 모든 어려움을 접어두더라도, UMNO 내에서 바다위의 미약한 정치적 위상은 향후 바다위 주도의 의미있는 정치변동에 대한 기대를 갖기 힘들게 만든다. 즉, 당내에 강한 파벌적 기반을 지니고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바다위의 입장에서 볼 때, 마하티르로부터 물려받은 권위주의적 통치체제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할 것이다. 비록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압력이 집권정당 내외로부터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강력한 개혁을 추진할 정치적 기반과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마하티르 체제하에서 수행되었던 권위주의적 국가경영의 기본적 흐름을 바다위가 의미있게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에도 무리가 있다.

1981년 마하티르의 집권은 UMNO 내 1세대 정치엘리트에서의 2세대 정치엘리트로의 세대교체의 의미를 지녔다. 이 시기 마하티르를 정점으로 하는 2세대 정치엘리트들에게는 전통에서 근대로의 전환을 수행해야 하는 역사적 소명이 놓여 있었고, 이들이 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에 반해, 마하티르의 퇴진이 한 시대의 마감의 의미한다는 넓은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바다위를 정점으로 하는 UMNO 정치엘리트들이 3세대 리더십을 형성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기는 웬지 석연치 않다. 이는 마하티르 집권 22년 동안 새로운 정치세대의 등장이 철저히 배제되어 온 정치과정과 전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반

영하여, 현재 UMNO 정치를 주목하는 많은 사람들이 UMNO 내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보다는 무사 히뎀, 라잘레이 등 과거 마하티르에 의해 배제되었던 구시대 정치인의 복귀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어찌면 자연스런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들이 말레이시아 현대정치사에 너무도 짙게 드리워진 마하티르의 정치적 유산의 그림자를 떨쳐버리고 시민사회로부터의 정치 개혁 요구에 제대로 부응할지에는 너무도 많은 의문이 남는다.

그렇다면, 말레이시아 정치체제의 변동가능성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전통 야당세력, KeADILan으로 대표되는 신흥정치세력 그리고 이들을 매개로 한 야당연합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 UMNO 분열이 제공하는 정치적 기회에 따른 '전략적 동거' 라는 세간의 비판을 극복하고, 이들 야당세력들은 말레이시아 민주화라는 공통의 목적 달성을 위해 얼마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들이 지니는 한계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대답에 앞서 우리는 말레이시아에서의 정치체제 변동과 전통야당세력의 이해관계에 우선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종족 간의 갈등은 독립 이래 지난 반세기 동안 말레이시아에서 항상 폭발 가능한 잠재적인 위기로 존재하였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종족 간의 갈등이 제공하는 위기는 그동안 지배엘리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안정적 집권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안전판' 이자 권위주의적인 정치권력의 행사를 정당화해 주는 주요 근거로서 긍정적 작용을 해 왔다. 더 중요한 사실은 종족 간 갈등구조가 제공하는 혜택이 반드시 여당에게만 국한되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말레이시아의 정치현상이 종족정치라는 틀로서 규정되는 한, 종족갈등을 통한 세력기반의 확충과 정치적 동원은 지배세력만이 아닌 야당세력에게도 그 생존의 기반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둘 때, 1999년 총선 이후 DAP와 PAS를 중심으로 전개된 분열적 정치행태는 쉽게 이해될 수 있다. 특히 종족적 이해관계로 대변되는 기존 정치의 틀을 변화시키는 문제에 있어서 이들 야당세력은 최근 더욱 중

족중심의 전통적 정치행태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DAP의 경우는 BA에서의 탈퇴 이후 다음 총선이 다가오면서 이슬람국가 건설의 문제로 PAS와 그 대립각을 점점 첨예하게 세우고 있다. PAS의 경우도 1999년 총선에서의 약진을 발판으로 다음 선거에서 말레이계가 다수인 지역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위상을 더욱 공고화하기 위하여 야당 공조보다는 말레이계의 종족적, 종교적 정서를 자극하는 정치행태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다. 이들 DAP와 PAS는 특히 종족적 경계를 뛰어넘어 각 종족의 젊은 계층에서 정치적 기반을 확충시키려는 KeADILan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들 전통야당세력들이, 특히 KeADILan과 젊은 중국계층으로부터의 지지를 놓고 경쟁하는 DAP의 경우, 전통적인 종족정치의 틀을 벗어나 다종족적 이해관계에 기반하여 새로운 정치를 구현하려는 KeADILan을 여당정치세력보다 오히려 더욱 적대적인 존재로 대한다는 KeADILan 내부의 하소연이 결코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니다.

KeADILan의 경우도 그 한계는 극명하다. PRM과의 통합 등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의 확대를 꾸준히 꾀하고 있으나 시민사회의 변화된 요구를 견인하는 정치세력으로 자리하기에는 아직도 요원한 상태다. 이 이유에는 여야를 막론한 전통적 정치세력의 집요한 견제도 있으나, 안와르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무관심 증대, 새로운 정치적 이슈의 부재 및 당내의 복잡한 분파적 파벌구조 등이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2001년 4월에 발생한 6명의 정치개혁 주도인사에 대한 전격적인 구속이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이들의 구속 이후 KeADILan의 정치활동이 급격히 위축되었던 상황은 이들의 정치적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례이다.

여야 모두 마하티르 이후의 정치 전망에 대해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UMNO를 중심으로 한 BN 체제에 대한 마땅한 대안조차 존재하지 않

7 피안 추아와의 인터뷰 (2003년 10월 30일)

은 상황에서 향후 말레이시아에서의 정치변동의 전망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적어도 말레이시아 정치가 1998년 안와르 사건을 계기로 새롭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종족정치를 근간으로 하는 전통야당세력과 다종족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스스로의 내적 한계'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안와르 사건이 제공하는 '정치변동의 기회'에 의해 제대로 된 대안도 없이 연합전선을 이루었고, 그 내적 한계 또한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KeADILan 부총재인 띠안 추아 Tian Chua가 주장하듯 지난 5년간의 미성숙했던 경험이 결코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는 이제까지의 전통야당세력 및 시민사회의 내적 한계는 결국 지난 반세기 동안의 종족정치와 마하티르의 권위주의적인 정치적 유산에 의해서 조건지워졌던 것이므로, 1998년 이후 다종족적 시민사회영역의 확대와 마하티르가 없는 말레이시아의 새로운 정치구도에서는 과거의 한계도 새롭게 조명되어야 한다고 본다.⁷ 정치변동에의 혼탁한 비전 속에서 이제까지 집권 정치엘리트 중심의 말레이시아 정치에서 점차 야당 및 시민사회의 정치적 역할이 중요시되는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것이다. ■

황인원 inwonhwang@korea.com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상임연구원,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역임. 저서로 『Personalized Politics: The Malaysian State under Mahathir』 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 「Authoritarianism and UMNO's Factional Conflict」, 「UMNO 과별주의와 마하티르 정치리더십의 권위주의화 경향에 관한 연구」 등 다수가 있다.